

“인터넷 통해 N세대와 가까워졌으면”

사찰을 청소년의 컴퓨터로

서창우(전남고1) 중학교 1학년 처음 절에 갔을 때에는 스님의 삭발한 모습이 낯설었고 합장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절이라는 곳이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차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절에서의 모든 생활이 즐거움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나처럼 절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찾아와 고민도 털어놓고, 좋은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되었으면 한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산희(광주송원여고1) 우리 나라 사람들은 청소년을 위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법회와 방학때 열리는 수련회가 고작이다. 그리고 법도들 딱딱하게 느껴진다. 일반 청소년도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야 한다. 특히 현재의 어른들 위주로 돼 있는 사찰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찰을 찾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사찰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

구태의연한 분위기 쇄신

오동준(제주제일고2) 많은 청소년들이 불교 하면 구식이고 할머니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다. 나 또한 컴비나화생에서 신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보다는 막연히 종교적인 면만을 강조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청소년들이 결국엔 실망만을 안고 돌아가곤 한다. 기존의 찬란한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발맞추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절마다 청소년시설 확충

고상연(제주일고2) 타종교의 경우는 지역 곳곳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어, 청소년들이 자기 집 드나들 듯이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 불사 청소년들은 절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찾아가갈 곳이 별로 없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생긴다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도 함께 이야기하고, 불교적 관심사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찰학술회 활성화 해야

남지원(서울서문여중3) 나는 요즘 우리는 선우 학술회에서 활동하는 일이 참 좋다. 선우같은 단체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기독교 같은 경우 신도도 많고, 단체도 많고, 그에따른 조직도 탄탄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아직 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싶은 단체, 그런 프로그램을 갖춘 사찰학술회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21세기 주역 청소년 21명의 '내가 바라는 불교'

특독 튀는 신세대들, 미래불교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불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본지는 창간 5주년을 맞아 새 밀레니엄 21세기를

앞두고 21세기의 주역 청소년들 21명에게 그들이 원하는 21세기 한국 불교의 모습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그림 · 최정근

'청소년 불서' 발행 늘려야

이창건(서울송문고2) 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도 딱딱한 책 일수도 한문도 너무 많고, 풀이도 난해하다. 한글세대인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경전과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항상 지니고 읽으면서 생활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책들, 그리고 우리 또래 청소년불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남녀노소 모두 찾는 불교

강현미(서울 명성여고1) 불교 단체나 사찰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른들 중심이다. 우리같은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현재 학교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불교에 관심있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사실 어떻게 불교를 접해야 하는 지 모르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에만 반짝하는 불교가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안는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캐릭터로 친근한 상 심어

김경미(경북영양여고2) 캐릭터를 잘 활용하면 불교가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다. 캐릭터로 인형을 만들거나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컴퓨터 게임 주인공으로 쓰거나 불교잡지 등에 마스코트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실현된다면 불교는 친숙한 종교가 될 것이다.

신세대가 호감받는 불교

김아름(서울명성여고2) 불교종립학교를 다니는게 인연이 돼서 불교를 알게 됐다. 하지만 학교에서 종교조사를 할 때 보면 불교신자인 친구들은 손도 잘 안들고

소극적이다. 여전히 불교는 우리 신세대들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다. 불교계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 많은 청소년들이 불교에 호감을 갖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불교교리 체계있게 교육

김수경(서울명덕여고2) 친구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를 묻곤 한다. "불교가 뭐냐? 기독교는 뭐야?" 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때 가장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대는 이들이 바로 불자들이다. 엄마따라서 절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정작 자기 믿는 불교가 어떤 것인지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어려서부터 불교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가르침이 있었으면 한다.

인생목표 밝혀주는 종교

이연희(대구경명여고2) 佛은 영원한 생명, 즉 진리이고, 敎는 그런 진리를 설행해 놓은 가르침의 말씀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듯 진리가 위여하게 돌아가 생활의 근본이 됨도 당연하기에 21세기에는 불교가 종교로서가 아닌 진리의 차원에서 그 도리를 찾아가 인생의 목표를 밝혀주고 길을 알려주는 근본이 되기를 바란다.

대중매체 포교활동 강화

정은경(대구경북여고1) 불교가 생활속에서 쉽고, 재미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대중 매체에서 불교홍보를 많이 했으면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라디오, 텔레비전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에서의 퀴즈대회, 사생대회, 백일장, 연등행사, 사경대회, 찬불가 경연 등을 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계획해 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친다면 참 좋겠다.

인터넷·PC통신등 활용

이지훈(대구능인고1) 불교는 너무 어렵다. 내 친구들도 고작 아는 거라고는 부처님오신날 정도지 이상의 것은 잘 알지 못한다. 불교라는 종교를 접하는 것이 따분할 정도로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이나 통신에 불교에 대한 정보를 좀더 많이 접하도록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불교로 다시 탄생할 것이다.

사회 봉사활동 널리 펴야

김휘(대구능인고1) 생활 속의 불교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보수적 분위기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그동안 사찰이 주로 산에 있어서인지 보수적이고 은거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많이 펴는 종교가 되기를 바란다. TV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종교인들로서 불자들이 많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친절하고 자상한 상담을

문영주(부산성동여고1) 똑같은 이야기라도 스님들이 하시면 더 마음에 속속 스며든다. 스님들이 우리같은 청소년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 주시고 상담도 잘 받아 주셨으면 한다. 스님을 자주 만나 좋은 말씀을 듣고 불교를 배울수 있으면 불교가 아주 쉽게 이해될 것 같다. 또한 <금강경>이나 기초교리등의 과정을 청소년들에게 맞게 재미있게 바뀌 교육해 주었으면 한다.

스님들 제발 안싸웠으면

이지은(부산학창여중3) 지난해 TV를 통해 스님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상했다. 자비와 보살행을

가르치시는 스님들이 왜 저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지 이해되지 않았다. 제발 스님들이 싸우지 마시고 수행에만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또 신도 누구에게나 반말을 하는 스님들을 보았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신도에게도 반말을 하는 스님들이 있다. 스님들이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부드럽게 부처님처럼 대해주셨으면 한다.

정신세계 이끌어주도록

노경민(부산해동중1) 나는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폭넓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21세기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할 것인데 너무 물질적인 과학문명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대해 깨달게 하는 정신적 분야가 함께 발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접근하는 불교, 재미있고 쉬운 불교로 청소년에게 알리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그 한분야가 컴퓨터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불교자료를 찾아보고 접할 수 있다면 좋겠다.

찬불가 창작 많아졌으면

박주경(부산외국어고1) 청소년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찬불가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축하는 보편적인 명절로 자리잡았듯 부처님오신날도 모든 사람이 즐겨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으면 한다. 청소년법회, 수련회등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었으면 한다.

부끄러운 불교모습 청산

남기용(서울세화고2) 기복적 신앙만으로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고 본다. 세상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계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씩 청산해야 한다. 지난해 일어났던 조계종 사태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다. 그렇게 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신뢰하고, 21세기의 진정한 종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게임·교리 사이트등 개발

민영태(인천부평고2) 매일 인터넷에 접속해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신속성이야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것 같다. 특히 불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게임이나 교리공부 등의 사이트가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불교가 발전해 가길 바란다.

청소년 유행흐름도 이해

신형민(의정부고1) 사찰에 가면 스님이나 지도부사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최근 유행이나 성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머리에 염색을 하고, 합탈바지를 입고, 귀걸이등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나쁜 아이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될 때가 있다.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변화를 편견없이 지켜봐줄 수 있는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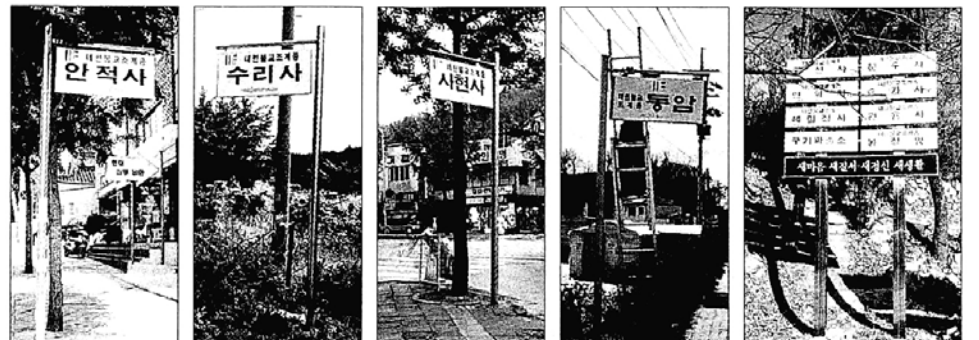
■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 전주용 간판 ■ 게시판 ■ 현수막
- 목간판 ■ 난간대 공사
- 첼스공사(울타리공사)
-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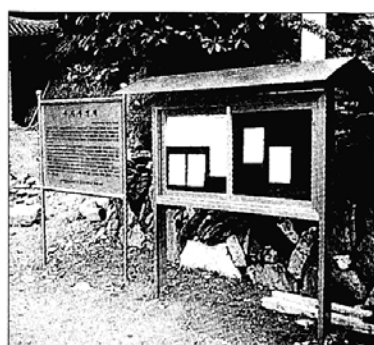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x 10cm

참배 후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